

#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지역, 합동 바다 환경정화

15일,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지역(대표 한옥희) 각 클럽은 3월 15일 부석면 간월도리 해안가에서 합동 바다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한옥희 지역대표를 비롯한 로타리 안과 서동걸 부석면장과 직원, 김만석 간월도리 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지역(서산RC·서령RC·새서산RC·충서RC·한서RC·서산보라매RC·서산국화RC·서산가온RC) 각 클럽 회원들은 간월도 해안가에 밀려든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한옥희 대표는 “바쁘신 일정에도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위해 함께해주신 서산지역 각 클럽 로타리안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의 수고



▲바다환경정화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모인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지역 각 클럽 로타리안 가족

우리 지역 관광지 중 한 곳인 간월도리를 한층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걸 면장은 “우리 부석면의 환경정

화를 위해 찾아주신 로타리안 가족분들께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간월도리에 위치한 ‘카페 굿모닝

108’에서 봉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 훈훈한 미담이 됐다.

/가금현 기자



## 아산시, 2025년 여름 자연재난 대비 강화

아산시가 태풍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방재시설 정비 및 시험가동 ▲피해 수습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에 대해 9개 주요부서가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은 “겨울철 시설대책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봄철 산불 대비, 여름철 호우·태풍 사전대비가 연속되는 상황에서도 최선

을 다하는 관련 부서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또한, 그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이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워지고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사전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오는 5월 14일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빗물받이 준설 등 각 부서별 사전대비 사항을 완료하여 최종 대책회의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5.5.15.~2025.10.15.)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성환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학생 교육 강화 및 학업중도포기 해결 방안 모색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1차 회의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매년 증가..지역 통합과 미래세대 성장 위한 논의 필요”



▲다문화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 1차회의 /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가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

성재)은 지난 20일 천안교육지원청 중회의실에서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연구모임은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도의원, 교수,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순천향대학교 최근택 교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 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충남연구원 윤창희 책임연구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한 센터장,

청운대학교 박영의 교수,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청남도 권영란 다문화지원팀장, 충남교육청 이강일 국제교육팀장, 강성원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유성재 의원은 “충남 다문화 학생은 2022년 12,795명, 2023년 14,015명, 2024년 14,9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2022년 5.0%에서 2024년 5.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는 “2021년부터 2023년 기준 중단율은 0.72%에서 0.8%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연구모임 간사를 맡은 최근택 교수(순천향대학교) 등 연구모임 회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 다각화와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글로벌화 되는 가운데,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문제와 학업중도포기 문제는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이슈인 만큼 이번 연구모임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두호 기자

## 예산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준비 완료

디지털 혁신과 현장중심행정 강화로 편리한 예산 조성 '앞장'

예산군은 3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발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군은 지난 2월 28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고 있으며, 전면 시행 전에는 관내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 읍면별로 1개씩 단말기를 보급했으나 군은 인구가 많은 예산을, 삼교읍, 덕산면과 삼교 내포출장소에 추가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최재구 군수도 지난 2월 28일 예산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아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더 편리한 세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현장중심 행정을 강화해 더 편리하고 활력 있는 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용관 기자

## [신간] 태안과 바다

이충일호문화연구원 출간

저자 박현규 춘천향대학교 중국어학과 명예교수

이충일호(二忠一孝)문화연구원은 박현규 춘천향대학교 중국어학과 명예교수가 작성한 논문집 『태안과 바다』를 출간했다.

박 명예교수는 “태안(泰安), 글자 그대로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대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움과 서해 제일의 청정하고 멋진 바다 경관, 그리고 전통 미풍을 간직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안의 역사와 문화를 뽐내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태안에는 숨겨진 역사와 문화가 무궁무진해 이것을 발굴하는 작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태안의 참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또한 태안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바다, 우리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으로 특히 태안 안흥진성(安興鎭城) 정상부에서 광활한 바다 위로 황금빛이 퍼져있는 경관, 바닷물이 반짝이며 빛나는 윤슬을 그쳐 바라보지만 해도 가슴이 벅찬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태안의 고즈넉한 갯마을에서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무한한 사색

(思念)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 태안의 바닷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려 있는 것을 안흥량(安興梁)의 옛 이름인 난행량(難行梁)에서 보듯이 이곳에는 복잡한 해저 지형으로 곳곳에 암초가 깔려 있는 데다가 여러 물길이 서로 부딪혀 크고 작은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선박이 지나가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면서 “특히 관장목은 우리나라에서 물살이 가장 거센 물목 중의 하나라 꼽히는 곳이라 예로부터 선박 난파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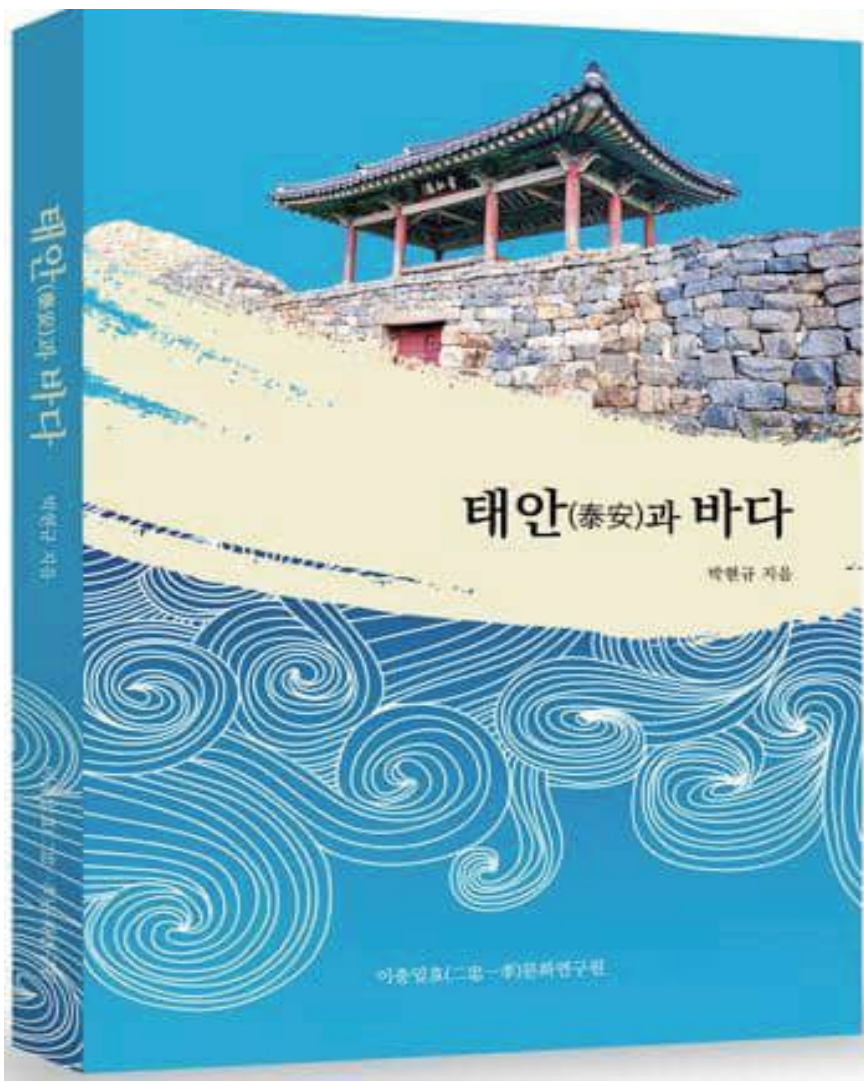
선박 난파란 뱃사람들에게는 생명과 물자를 잃어버리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 훗날 해양 조난 역사나 수중고고학을 연구하는데 좋은 원천물로 제공해주어 긍정적인 씨앗도 숨겨져 있다.

박현규 명예교수는 “필자가 태안을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계기는 바로 소주(蘇州) 가씨(賈氏) 집안이 있다”며 “소주가 씨는 4백여 년 전에 태안에서 뿌리를 내린 황조인(皇朝人) 집안으로 소주 가씨의 해동 삼조, 즉 가유약(賈維鑄), 가상(賈祥), 가점(賈琛)은 임진왜란 때 조선

태안 남면 양잠리에 해동 삼조를 모신 숭의사(崇義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종 때 태안 바다를 지킨 안흥진수군병마절제사(安興鎭水軍兵馬節制使) 가행건(賈行健)의 《석호집(石湖集)》을 국역하는 것을 필두로 해동 시조 가유약의 시문과 활동, 충신의 상징인 물인 가의(賈誼)와 관련 있다고 전해오는 가의도(賈誼島)의 지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 수집과 연구 분석을 했고, 특히 가유약의 원 고향인 하북(河北) 준화(遵化)를 찾아가 가씨 조상과 가유약의 행적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녔다”면서 『태안과 바다』를 저술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태안과 바다는 1편 전통 시기 안흥량(安興梁) 해역의 선박 치패와 외국 선박 출몰에서 전통 시기 안흥량의 외국 선박 출몰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2편 1818년 조선 태안에 표착한 조주(潮州) 황강상선(黃岡商船)에는 조주 황강상선의 조선 표류와 송환 과정, 조주 황강상선의 승선 인원과 신체 특징, 조주 황강상선의 적재 화물과 판매 가격, 조주 황강상선의 선체 모습과 기물 종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3편 명 수군장 계금(季金)의 조선 파병과 안면도 해난에는 계금(季金) 수군의 파견 과정, 계금(季金) 선단의 해난 기록 등을 나열했다.

4편 태안 가의도 입도 주민과 지명 고찰에서는 가의도의 입도 주민, 가의도의

지명 표기, 가의도의 지명 유래 등이 담겨있다.

5편 소주가씨 해동조 가유약(賈維鑄)의 행적과 문학에는 가유약의 선조 고찰, 가유약의 행적 고찰, 가유약의 문학 고찰에 대한 내용이 저술돼 있다.

6편 가행건(賈行健)의 《석호집(石湖集)》 해제에는 《석호집》가행건의 생애, 《석호집》의 서지 사항, 《석호집》의 내용 특징으로 안흥진 진상품 탐강 주선, 지역민 민생을 보살피준 활동, 안흥진성을 읍은 작품, 충청바다를 읍은 작품, 한양에서 노닐던 작품, 황조인의 자부심을 토로한 작품과 《석호집》의 의미가 담겨 있어 태안군의 소중한 기록문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저자 박현규 명예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중국어과 명예교수,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객원 교수, 전 한국중국 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저서로는 『동아시아 해상 교류와 해신마조』, 『중국 대륙 속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지명』, 『임진왜란 중국 사료 연구』, 『임진왜란 남원성 전투와 명군 문물』, 『19세기 중국에서 본 한국 자료』, 『석호집』국역 등 300여편이 있다.

이 책을 펴낸 이충일호문화연구원(이사장 가갑순)은 가유약 삼 세의 충효 정신을 기리고, 그 이념을 실현하고 연구하기 위해 소주가씨 종친회 부설로 2021년 9월에 발족했다.

연구원은 충효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성, 진로, 리더십, 창의 체력, 공동체 활동, 글로벌마인드 함양에 필요한 체험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실행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이사장, 원장, 감사, 자문위원과 20여 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석호집 발간, 소주가씨대관 발간 및 전자책보, 2층1호전 국백일장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성진 기자